

마이크로形態資料 利用의 問題點

—우리나라 研究機關의 利用者調査를 中心으로—

李 淳 子*

.....<目 次>.....

| | |
|----------------------------------------|---------------------|
| I. 緒 論 | 2) 資料室對象 設問內容 |
| II. 마이크로 形態資料의 利用現況 과 問題點 | V. 利用者調査結果의 分析 및 要約 |
| III. 利用者의 受容態度 | 1) 人의事項과 利用經驗 |
| IV. 우리나라 研究機關에서의 마이 크로形態資料 蒐集과 利用現況 | 2) 一般의인 受容態度 |
| 1) 조사결과 분석 | 3) 問題點에 대한 認識度 |
| | 4) 利用者對象 設問內容 |
| | VI. 結 論 |

.....

I. 緒 論

마이크로形態資料가 인간의 지식을 記錄, 傳達, 蓄積하는 새로운 媒體로서 갖는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活字의 사용이 인간의 지식 산업에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온 이후 500여 년간 어느 다른 매체도 印刷媒體를 도전하거나 그 위치에 접근한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1930년 이후 꾸준히 量的으로나 매체의 價値로서 마이크로형태자료만큼 눈에 띄게 成長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Fremont Rider 같이 未來志向的인 학자는 이미 1940년대부터 마이크로형태자료가 도서관의 資料蒐集에서 印刷形態를 결국은 완전히 몰아 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도서관 장서의 완전한 마이크로화와 동시에 적절한 書誌統整을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

위해서 마이크로카드의 裏面을 목록카드로 사용하여 자료 자체와 그 자료의 目錄情報가 하나로 만들어져 카아드函에 다 들어가고 書庫는 필요 없는 도서관을 주장한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고¹⁾, 마이크로 形態資料를 製作販賣하는 회사들의 성급한 商魂이 여러 광고문에서 마이크로化만이 끝 없이 증가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關鍵이라고 단정을 하기도 한다. Norman Mangouni 는 마이크로형태자료를 이미 우리가 들어 선 電子時代媒體의 incunabula 라고까지 부른다.²⁾ 즉 활자발명 이전에 수많은 筆士들이 양피지에 손으로 베껴서 만든 책이 활자사용 이후 그 방법의 經濟性과 大量傳達의 위력 때문에 인쇄매체에 완전히 밀려난 것과 똑 같은 이유로 오늘의 마이크로형태자료는 電子時代의 主宗媒體가 될 것에 비유한 것이리라.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양피지에 베낀 책과 종이에 인쇄해 만든 책의 차이를 인쇄형태의 자료와 마이크로형태의 자료의 차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종이에 활자로 인쇄한 책이 양피지에 베낀 책에 비해 審美性과 永久保存性을 좀 잃는 대신 經濟性과 大量性이라는 절대적인 장점을 갖고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확대시켰고, 이용자로서는 두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용습관을 바꾸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여기에 비해 마이크로형태 이용이 독자에게 주는 불편은 치명적인 것이다. 肉眼으로 이용이 不可能하고 항상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점, 또 마음대로 책 같이 들고 다닐 수 없는 장소의 제한성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쇄형태자료에 익숙해 온 이용자로서는 도저히 같은 태도를 가지고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媒體의 弱點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채로 그것을 物理的으로 改善하고 心理的으로는 이용자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진 先入見을 없애려는 노력이 지금으로서는 고작인 것이다.

理想論을 펴는 初期의 학자들이나 성급한 製作者들의 主張에 불구하고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이용의 증가와 확산에 따라 오히려 현실적인 이용자들이

1) Fremont Rider, *The Scholar and the Future of Research Library* (New York : Hamden Press, 1944).

2) Norman Mangouni, "The Future of Microforms," *Microform Review*, 4 (Oct. 1974) p. 101.

나 자료취급자들은 이 자료의 限界를 절감하고, 그 한계 안에서 올바른 評價에 의한 그 자료만이 가진 強點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 오늘의 일반적인 見解이다.

印刷媒體의 절대적인 既存性은 어떤 새로운 매체도 완전히 代置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도 知識產業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정보의 量이 늘고 취급이 복잡해져서 기존의 매체만으로는 여러 경우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증가하고 확대되는 부분에 새로운 매체가 끼어들어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해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쇄매체와의 새로운 共存者로서 또는 相互補完者로서 마이크로형태의 매체가 가진 正當性과 比較優位性을 인정하고 受容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1) 마이크로형태자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이용도를 概觀하고, 2) 이미 이 자료를 普遍的으로 이용하고 있는 先進國에서 경험한 이용자의 受容態度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이 자료가 가진 이용자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3) 우리나라에서 現在 마이크로자료의 利用集團으로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研究機關의 이용자들이 一般的으로 이 자료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와 태도를 조사하여 現在의 利用實態調査結果를 整理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II. 마이크로形態資料의 利用現況과 問題點

圖書館에서 마이크로형태자료를 蒐集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1957년에 Pritsker와 Sadler가 Association Research for Libraries를 위하여 실시한 조사³⁾를 비롯하여, 1969년에 Holmes가 실시한 調査⁴⁾, 1970년에 Lewis의 利用者反應에 대한 조사가⁵⁾ 초기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것이었고,

3) Alan B. Pritsker and J. William Sadler, "An Evaluation of Microfilm as a Method of Book Storag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8(1957) pp.290~296.

4) Donald C. Holmes, *Determin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d in a Librar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Microforms*, (Washington: Office of Education, Bureau of Research, 1970).

5) Ralph W. Lewis, "Users' Reaction to Microfich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1 (July 1970) pp.260~268.

1970 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는데, 1974 년에 ALA 의 Government Documents Round Table 에서 보낸 設問과 또 같은 해에 마이크로형태 出版業者들이 실행한 設問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綜合해 보면 각 도서관의 目的과 環境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의 우선 순위는 다르게 나왔으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점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 1)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구할 길이 없거나 구하기 힘든 資料를 供給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
- 2) 물리적으로 파손되기 쉬운 低質의 종이에 인쇄된 자료를 代置하기 위하여.
- 3) 稀貴本이나 貴重本의 閱覽本으로 쓰기 위하여.
- 4) 부피가 너무 커서 취급이 어렵고 배열순서가 망가지기 쉬운 옛날 신문이나 잡지를 보관·열람시키는 편의를 위하여.
- 5) 保管場所를 많이 차지하고 利用度가 낮은 자료를 영구보존하는데 공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등의 이유는 어디서나 들고 있었다.

그 외에도 部數가 적은 限定版을 싸게 만들어 공급하는 方法으로써 또는 사본판(facimile)을 언제나 만들 수 있는 中間媒體로서의 가치 등도 거론되었다.

圖書館奉仕에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로형태의 이용이 두드러진 것은 카아드 목록을 마이크로펫쉬로 바꾼다던지, 貸出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료의 貸出本을 만든다던지, 또는 相互貸借를 대신하여 아예 마이크로형태로 만들어서 提供해 주므로써 자료이용을 활발하게 촉진하는 길도 있다. 그만큼 마이크로형태의 수집이나 이용은 그 이유가 어느 한 측면만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複合的이다.

ARL 이 發表한 統計에 의하면 1970 년에 미국의 研究圖書館에서 蒐集保有하고 있는 자료를 통틀어 본다면 印刷資料 對 마이크로형태자료의 比率이 4 : 1 이었던 것에 비하여 1975—76 년에는 2.5 : 1 로 그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자료의 量이 인쇄자료의 42%인 것이다.

마이크로형태자료의 成長趨勢는 계속 年평균 10—15%로 나타났고, 역사가

짧은 연구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로형태의 자료가 인쇄자료보다 더 많은 곳도 보통일이 되고 말았다.⁶⁾

1950년 이후 마이크로형태 出版의 商業化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COM에 의한 제작의 경제성이나 다른 利點이 두드러지게 되자 오리지널 마이크로形態의 出版과 印刷形態와의 同時出版 등이 급격히 자라나는 기업으로 대두되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University Microfilms社에서 시작한 Text/Fiche 프로그램은 그림이나 도안이 많은 책을 文案은 인쇄형태로 하고 그림은 펴쉬에 넣어 값비싼 미술책 같은 것을 값싸고 질이 좋은 책으로 만든다던가, 계속 上昇하는 학술잡지의 購讀料 때문에 도서관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Pergamon Press에서는 240여 가지의 자연과학 학술지를 마이크로형태로 인쇄형태와 동시에 그 구독료의 50-80%의 값으로 보급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New York Times의 마이크로형태 보급과 인쇄형태의 索引製作으로 소위 dual media의 참고자료 제공의 새로운 方式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Congressional Information Service (CIS) 같은 회사는 美政府刊行物 중에서도 가장 量이 많고 서지통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美國議會資料를 정리하여 철저한 색인은 인쇄형태로 보급하면서 原文은 이용자가 필요한 부분만을 마이크로형태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서비스도 劃目할 만하다.

非商業分野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의 政府出版物刊行所(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간행물의 마이크로화를 擴大하는 한편, 이용도는 낮지만 자료로서 중요한 것 중에서 부피가 많은 品目を 차차 마이크로형태로만 出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카아드목록이 COM에 의한 마이크로 펴쉬로 바뀌는 곳이 많아지고, 보통 참고도서도 마이크로형태로 바뀌는 것이 생겨나자 이용자는 마이크로형태로 밖에 얻을 수 없는 많은 자료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이지

6) Association for Research Libraries, *Library Statistics, 1975/76*, (Chicago: 1977).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애초의 dual media 는 인쇄형태의 색인과 마이크로형태의 原文提供 방식이었는데 비해 새로운 dual media 는 색인은 data base 와 연결된 on-line 검색방식과 마이크로형태의 原文提供이 아니면 색인과 원문이 모두 마이크로형태나 on-line 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1979 년에 시작된 Magazine Index(Information Access Cooperation) 같은 것이 미국의 300 여 개의 대중잡지의 記事索引과 抄錄을 마이크로형태와 on-line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주고 있는 새로운 dual media 의 예이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마이크로형태자료의 이용은 앞으로 닥아 올 電算化된 情報處理의 보편화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on-line 으로 檢索하여 CRT 스크린에 나타나는 映像活字로만 가능할 접근 방법에 對備하여 이용자가 그것에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하는 과정으로도 삼을 수 있다.

機械의 普及에 의해 읽는 영상 활자를 통한 독서습관이 일단 익힌 후에는 인쇄형태의 독서습관에서 처음으로 벗어날 때의 저항은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마이크로형태의 이용습관은 앞으로 쓰이게 될 여러 가지 새로운 媒體를 受容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轉換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마이크로형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가지이다. 外形的으로 이들을 大別해 보면, 첫째로 마이크로형태자료 제작과 기계설비제작 과정에서의 문제, 둘째로 제작되어 나온 후의 記錄作業인 書誌統整의 문제, 그리고 셋째로 자료의 이용여건과 이용자의 태도문제를 들 수 있다. 제작과정의 문제나 서지통정의 문제는 근본원인이 하나로 귀착된다. 즉 양쪽 측면에서 하나 같이 뚜렷한 기준이 없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것이 確立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형태 자료제작자들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縮小率 內容의 排列, 포맷의 기준이 없이 만들어 내었고, 또 그것에 따라 각각 다른 기계를 가져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아드웨어 기술의 발달로 점점 쓰기 편하고 경제적인 카세트, 카트릿 형태의 리일이 나오에 따라 이전에 이미 나온 기계들이 구식이 되어 버렸

때문에 既存投資에 대한 時效가 너무 짧아 과연 경제성으로 따져 볼 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이와 못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적절한 書誌統整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형태자료의 書誌統整은 인쇄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單位에 대한 外部的인 기록을 만드는 作業(external bibliographical control)에서 끝날 수가 없다.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게 하려면 한 단위에 들어 있는 압축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分出記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分出를 만드는 內部的 書誌統整(internal bibliographical control)이 철저히 못한 것은 利用者의 不滿要因으로 계속 指摘되어 마이크로화한 큰 자료는 情報의 整理·蓄積이 아니고 단순히 ‘情報의 埋藏’이라는 강력한 반응까지 보였다.”

마이크로형태자료의 書誌統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60년대 이후 여러 번 있었다. 1962년의 Simonton 報告書⁸⁾, 1969년의 Holmes 調査⁹⁾, 또한 1971년의 Reichman과 Tharp의 調査¹⁰⁾가 주의를 끌만 하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계속 指摘되어 온 것은 마이크로형태자료에 대한 書誌統整은 일반도서자료의 서지통정보다 말할 수 없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며, Simonton의 보고서에서 強力히 건의한 마이크로형태자료에 대한 國家目錄의 製作은 몇년 후인 1965년에 Library of Congress에서 *National Register of Microform Masters*를 시작하게 만든 힘이 되었다.

Simonton은 또한 마이크로자료에 대한 內部的 書誌統整인 分出目錄을 中央集中化하려는 도서관 협력의 노력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마이크로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했으나 별 進展을 보지 못했다.

Holmes의 조사에서도 Simonton의 조사 이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7) Stephen R. Salmon, "User's Resistance to Microforms in the Research Libraries," *Microform Review*, 3 (July 1974) pp.194~199.

8) Wesley Simonton,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Microform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6 (1962), pp.29~40.

9) 註 ④를 參照할 것.

10) Felix M. Reichman and Josephine M. Tharp, *Bibliographic Control of Microforms*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1972).

마이크로자료에 대한 서지통정이 문제되어 결국 Reichman 과 Tharp 의 조사를 좀 더 큰 規模로 본격적으로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Reichman 과 Tharp 도 LC 가 MARC 레코드에 마이크로자료 分出記入을 포함시켜야 하며, 마이크로자료를 위한 書誌統整 道具 내지 目錄道具인 COM index 같은 것을 곧 시작하여 埋藏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자료의 資源을 活性化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1970 년대에 들어와서 마이크로자료의 계속적인 增加와 빈약한 書誌統整은 限界點에 다다랐다.

1976 년 ALA 총회에서 마이크로형태 자료에 대한 書誌統整分科委(Subcommittee on Bibliographic Control of Microforms)가 發足될 만큼 문제의 심각성은 두드러지게 認識되었고, 결국 專門家들의 의견은 이 문제를 中央集中的인 國家水準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여러 次元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一致하였다. 즉 마이크로형태에 대한 商業出版리스트의 作成, LC의 CIP(Catalog in Publication) 프로그램에 마이크로出版社를 적극 參與시킬 것, National Register 를 MARC 포맷으로 만들고, NUC 는 물론 OCLC 같은 自動目錄시스템에 마이크로자료를 包含시켜서 적어도 일반도서 자료에 쏟고 있는 관심만큼이라도 마이크로자료의 서지통정에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70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專門家들과 專門團體의 의견합치에서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고, 外部的 書誌統整은 여러 면으로 활발해지고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National Register 는 그동안 唯一한 國家的 國際의인 서지통정 도구의 역할을 하였으나 그 후 수많은 地域別 圖書館의 마이크로자료 綜合目錄製作로 큰 연구도서관이 가진 마이크로資料 資源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商業出版界에서도 *Books in Print* 와 맞먹는 *The Guide to Microforms in Print* 와 이것의 主題接近을 위한 *The Subject Guide to Microforms in Print* 를 1960—1975년간의 리스트를 基本冊으로 내고, 1976 년부터는 年刊으로 내고 있어 求得可能的의 자료에 대해 계속 정보를 提供하고 있다. 또한 *Micro-*

publisher's Trade List Annual 도 나와 마이크로出版社의 會社別 리스트를 제공 하는 등 이제 外部的으로는 도서자료와 거의 같은 수준의 書誌統整이 이루어지고 있다.

內部的 書誌統整에 있어서 圖書館側에서는 마이크로出版社들이 좀 더 적극적인 顧客서비스를 해야한다고 主張한다. 완전한 分出카아드를 마이크로 자료에 없어서 같이 제공한다고 하는 출판사도 있고, 目錄情報의 出處를 광고에 밝히기도 하지만, 아직 여러 면으로 不完全하고 無責任한 實情이다.

경제적으로 커가고 있는 마이크로출판사들의 書誌統整責任은 고객이 강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研究圖書館에서는 마이크로자료 購入政策에서 무책임한 출판사의 製品을 거부해야 한다는 意見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California 주립대학 도서관에서는 방대한 마이크로자료의 帙을 살 때는 반드시 내용전체를 완전히 索引한 分出目錄을 출판사가 제공해야 하며, 全集類에서도 小單位에 대한 완전한 서지정보가 明示되어 있어야 하며, 리일이나 카세트 또는 마이크로 필치의 상자에도 제대로 인쇄된 label로 표시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출판사가 제공하는 모든 목록정보가 반드시 AACR에 符合되어야만 그 마이크로자료를 選定의 對象으로 삼는다는 것을 明文化해 놓았다.¹¹⁾

결국 각 圖書館마다 지금까지 그들 나름대로 완전한 目錄으로부터 簡易리스트에 이르기까지 各樣各색의 방법으로 자료의 內容接近을 試圖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LC와 다른 연구도서관, 상업출판사들의 協助의 必要性은 많이 인식이 되었고, 특히 상업출판사의 마이크로資料目錄 제작에 있어 AACR을 반드시 지킬일, 또 밀려 있는 未整理狀態의 마이크로資料에 대한 遡及的인 목록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協力體制나 資金調達이 도서관 전문가회의에서 활발하게 論議되고 있다.

도서자료에 비하여 엄청나게 큰 비용과 노력이 마이크로자료를 자유로이 용하게끔 하는 데에는 필요하다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진다. 현물제작자격이 저렴하고 공간절약의 경제성에 현혹되었던 사람들도 이용에 필요한 기계의

11)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nd College's Procurement Standards and Document Service Microform Policies, 1977" *Microforms: the Librarians' View*, 1978-79, by Alice Harrison Bahr,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1978) p.105.

維持나 간수에 따르는 비용, 特殊讀書環境의 조성이나 利用者奉仕를 위한 직원배정의 비용, 목록제작에 따르는 추가적 비용이나 實物資料가 필요한 때 print를 제공해야 하는 비용 같은 눈에 띄는 追加費用뿐 아니라 客觀的으로는 산출해 낼 수 없는 이용자의 自然的이고 內在的인 不滿의 代價, 또 파본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반환 요구가 불가능한 데에서 오는 可能費用 같은 것은 마이크로資料를 실제로 매일 사용해 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었다.

Ⅲ. 利用者の 受容態度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量의 情報를 蒐集해 놓고 또 그것에 대한 接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書誌統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마이크로形態 資料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 처음부터 論難이 많았다.

책의 사용 이후 代代로 우리의 思考方式이나 生理가 印刷形態를 통해 情報를 받아들이고 知識을 습득하던 습관에 적응된 것이 한 세대에 달라지기를 期待하지도 않는다. 또한 마이크로형태가 인쇄형태를 完全히 代置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마이크로형태를 통한 정보습득을 堪耐할 것인가, 또는 그 受容의 幅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또 우리 안에 內在하고 있는 拒否의 原因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을 규명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많은 연구와 조사의 의도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마이크로자료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비해 그 이용이 매우 低調하다는 사실이 司書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여러 유형의 도서관에서 각 계층의 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용자의 受容態度에 대한 조사가 여러번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형태자료를 가장 많이 써야 하는 研究圖書館에서 技術報告書를 마이크로 형태로만 蒐集하기 위한 準備段階로 1970년에 R.W. Lewis가 Boulder Laboratory에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利用者反應

調査¹²⁾나, New York Public Library에서 1971—1972년에 걸쳐 각 계층의 이용자에게 마이크로 팻쉬로 된 목록을 이용케 하여 그 반응을 조사한 것¹³⁾이 주목을 끌만 하다.

Lewis의 調査結果에 의하면 技術報告書を 항상 마이크로형태로 된 것으로 이용해 온 研究員들도 이것을 技術情報 傳播媒體로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보다(18.2%)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이(59.1%)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나왔고, 연구원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 형태자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受容度를 보던 기꺼이 쓰겠다는 사람은 8.8% 밖에 안 되며, 할 수 없이 쓰겠다는 사람이 52.0%, 쓰기 싫다는 사람이 33.2%나 있었다.

그들은 연구자료실에서 마이크로자료의 비중이 자주 커지는 데 대해 회의적이었다. 즉 技術報告書에 限하여 마이크로형태로 모으자는 意見이 많았고 다른 자료라도 마이크로형태로 밖에 구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만 마이크로形態로 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아서(42.4%) 制限된 範圍 내에서 特定된 자료만을 이 형태로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print를 無制限 허용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형태는 技術情報 전과매체로서 적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40.4%나 있어, 어디까지나 종이에 기록된 印刷形態의 자료에 대한 選好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New York Public Library의 조사는 특정 그룹의 이용자와 특정 종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일반도서관 이용자가 마이크로형태를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대한 實態를 調査한 것이므로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가 개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에 따라 受容條件이나 理由가 다르기 때문에 特殊利用者 그룹을 조사한 결과가 모든 이용자에게 適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調査에서도 물론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印刷形態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형태의 成功的인 利用은 어디까지나 인쇄자료의 補助資料로

12) 註⑤ 참조.

13) A. J. Diaz, *Microforms and Library Catalogs*, (Westport, Conn: Microform Review, 1977) p.9.

쓰일 때 效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또 이용자 중에서 연령별에 따라 受容態度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젊은 계층이 나이 많은 사람들 보다 마이크로형태에 대한 抵抗感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이 조사에서는 태어나서부터 TV 스크린과 더불어 살아 온 世代는 화면의 映像活字에 대해 生理的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앞으로의 世代가 舊世代보다 마이크로형태나 on-line 의 터미널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할 조건에서 이런 현상은 희망적이라고 보았다.

그 후 1974 년에 마이크로 出版社들이 실시한 조사¹⁴⁾의 결과는 利用者の立場이나 利用目的에 따라 수용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司書만을 相對로 마이크로형태에 대한 受容度를 조사한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아한다」가 70.25% 로 압도적으로 높고, 「싫다」는 것이 9.50%, 「그저 그렇다」가 20.25% 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학생들과 교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반응을 알아 본 결과는 매우 對照的이었다. 즉 :

| | 교수 | 학생 |
|-------|--------|--------|
| 좋다 | 16.75% | 15.50% |
| 싫다 | 39.75% | 39.50% |
| 그저그렇다 | 43.50% | 45.00% |

과 같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자 중에서도 직접 研究資料로서 마이크로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과 司書들 같이 단편적으로 문헌검색이나 다른 참고 사항을 찾기 위해 잠간씩 이용하는 사람과는 그 부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많은 양의 독서를 장시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형태가 역시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調査에서는 學生과 教授 간의 世代差異는 보이지 않았다. New York Public Library 의 조사에서 나타난 ‘젊은 층이 마이크로형태를 더 잘 받아 들인다’는 것은 여기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14) Idem, *Microforms in Libraries*, (Westport, Conn: Microform Review, 1975) p.383.

研究讀書로서의 이용과 事實調查로서의 이용이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또 하나의 조사는 1975년에 Georgia Tech에서 마이크로形態의 目錄이나 定期 刊行物 리스트를 도서관에 導入하여 학생들이 마이크로형태의 參考資料利用이 익숙해진 다음에 연구자료를 마이크로형태로 제공하고 그 반응을 조사했는데 參考資料로 계속 이용연습을 한 학생들이나 전혀 마이크로형태의 참고 자료를 쓰지 않은 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¹⁵⁾

또 보통 TV의 화면에서 얻는 色彩 있는 그림과 동시에 귀에 들리는 내용의 해설이나 음악효과가 곁들인 視聽覺的 미디어와 작은 글씨로 총총하게 화면을 채운 어려운 내용의 기술보고서 같은 집중력이 필요한 독서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아무리 TV 스크린에 익숙해진 世代라도 마이크로형태의 독서를 저항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¹⁶⁾

이러한 여러 調査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로는 研究者들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형태로 된 자료를 더 좋아하는 것은 신문이나 학술잡지의 back issue 들인데 보통 이런 자료는 부피가 클 뿐 아니라 종이의 질이 영구보존에 적합치 않아 실물로는 취급이 어렵고, 또 중간에 빠진 號나 파손된 페이지가 생기기 쉬운데 비하여 마이크로형태는 간편하고 빠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利用者들의 拒否反應은 언제까지나 實存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저항감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도를 摸索하기 위해서 앞의 조사에서는 한결 같이 이용자가 마이크로형태를 싫어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였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지적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았다.

즉 外部의이고 客觀的인 원인으로는 우선 자료접근을 위한 書誌統整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空間이나 照明 같은 이용환경이 제대

15) Robert J. Greene, "Microform Attitude and Frequency of Microform Use," *Journal of Micrographics*, 8 (1975) p.131~134.

16) William R. Hawken, "Making Big Ones Out of Little Ones," *Library Journal*, 102 (Oct. 15, 1977) pp.2127~2131.

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기계가 항상 모자라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낭비, 기계나 마이크로형태자료의 狀態가 좋지 않거나 너무 종류가 다양한데 제작자에 따라 같은 형태라도 다른 기계를 써야 하는 것 등이 指摘되었다.

內部的이고 主觀的인 것으로는 신체적으로 같은 體位나 姿勢로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피로움이나 눈의 피로가 가장 보편적인 불만요인이었으나 인쇄자료에서 얻은 습성에서 오는 것으로 마이크로 형태자료에서는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할 수 없는 불편, 내용의 앞뒤 대조가 어려운 것, 전체를 우선 훑어 보지 못하는 것도 많은 조사에서 지적되었다.

외부적이거나 객관적인 不滿要因은 철저한 書誌統整, 이용환경의 개선이나 기계나 마이크로형태자료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눈의 피로, 固定體位에서 오는 불편 같은 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므로 어디까지 해소될 것인지는 큰 의문이었다.

Baldwin 과 Bailey 가 이 점을 특히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들은 이용자가 양이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피로한 것이지 마이크로형태를 읽었기 때문에 인쇄형태 보다 더 눈이 피로하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¹⁷⁾ 앞에 언급된 Holmes 의 조사에서도 이용자 중에서 신체적인 피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마이크로형태를 어쩌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日常的으로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不平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年齡이나 世代差異 보다 마이크로형태를 연구자료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빨리, 불평없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主觀的인 불만요인은 무시하고 客觀的이고 外部的인 要因을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強要된 利用이 이용자의 受容度를 높인다는 사실이 G.P.O. 에서 1978년 이후 추진한 마이크로出版이 연구자들에게 미친 影響에서 나타났다.¹⁸⁾

17) T.S. Baldwin and L.J. Bailey, "Readability of Technical Training Materials Presented on Microfiche Versus Offset Cop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5(1971), pp.37~41, Quoted in Saffady, William, *Micrographic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8) p.144.

18) Nancy M. Cline, "A Librarian's Perspective of the G.P.O. and Micropublishing," *Microform Review*, 8:1 (Winter, 1979) p.28.

Nancy Cline 은 이 決定이야말로 도서관과 연구자들에게 革命的인 것이며 이제까지 마이크로형태에 대한 受容態度를 이것만큼 변화시키는 힘이 된 사건을 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 보려고 했던 자료에 대해 積極的으로 接近케 하는 契機를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넣어 주어 精神的인 負擔을 解消시킴으로써 主觀的인 疲勞要因을 제거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Cline 도 결론에서 말한 것은 마이크로형태자료가 인쇄자료와는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아 온 司書들의 태도나 봉사정신만을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이크로자료는 단순히 자료의 부피를 줄여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제공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奉仕의 量을 大幅 늘리는 것이므로 여기에 對應하여 司書들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이나 요구를 충족해야 함은 물론 사서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마이크로형태를 이용하는 初步者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갖기 쉬운 先入見이나 抵抗感을 最小化하는 책임은 사서가 느껴야 함은 물론이다.

Ⅳ. 우리나라 研究機關에서의 마이크로形態資料 蒐集과 利用現況

大學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에서 마이크로형태자료의 수집이나 이용이 普遍化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現實에서 마이크로형태자료에 대해서 그나마 올바른 理解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집대상으로 고려하고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각 연구기관 소속 자료실이다.

여기서 調查對象이 된 資料室은 모두 서울의 科學園地에 속해 있는 研究所의 소속 기관이다. 이들 연구기관에서는 設立初부터 資料蒐集政策에 마이크로 자료의 수집을 포함시켰고, 또 이 자료실의 이용자들은 이 형태의 이용을 必須로 생각할만큼 그들의 연구활동이나 정신자세가 國際化된 集團이다.

여기서 5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

科學院(KAIS), 國際經濟研究院(KIEI), 原子力研究所(KAERI), 韓國開發研究院(KDI)이다.

이 중에서 國際經濟研究院과 韓國開發研究院은 社會科學系統의 연구소이며, 원자력연구소와 과학원은 自然科學 및 工學系이다. 또 科學技術情報센터는 업무성격이 다른 研究機關과 다르나 취급자료의 내용은 주로 理工系統이 많다.

調査는 이들 5개 자료실을 상대로 보낸 設問紙와 이 자료실을 이용하는 研究員 150名을 대상으로 하는 設問의 대답에서 나온 결과를 整理한 것이다.

表 1. 研究資料室과 마이크로자료 취급현황.

| 연구소명 | 연구원수 | 장서량 | | 자료실 현황 | | | 설문 응답자 수 |
|----------|------|--------|---------|--------------------------------|-----|----------|----------------|
| | | 인쇄형태 | 마이크로 | reader, reader printer 수 | 사서수 | 기타 직원 | |
| 과학기술정보센터 | 83 | 57,000 | 8,930 | 7 | 7 | 25 | 30 |
| 과학원 | 860 | 30,000 | 100 | 10 | 6 | 9 | 19 |
| 국제경제연구원 | 250 | 20,000 | 3,000 | 1 | 9 | 3 | 31 |
| 원자력연구소 | 150 | 36,300 | 180,000 | 2 | 7 | 6 | 27 |
| 한국개발연구원 | 130 | 34,600 | 1,110 | 4 | 3 | 5 | 43 |

1)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이 된 자료실은 모두가 마이크로형태자료를 積極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중 3기관은 具體的인 蒐集計劃을 가지고 있었다. 마이크로형태자료 所藏量은 고르지 못하여 인쇄자료의 1/300 밖에 안 되는 科學院과 印刷資料의 5배나 되는 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하고 보니 印刷形態 對 마이크로 형태가 약 9 : 1(111,600 : 13,040) 정도이었다.

(2) 현재 가장 많은 형태는 microfilm 과 microfiche 이며 micro-opaque 를 가진 곳도 1기관(원자력 연구소)있으나 ultrafiche 나 aperture card 를 소장한 곳은 아직 없었다.

(3)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의 자료는 學術雜誌, 技術報告書, 論文, 新聞, 地圖의 順이다.

(4) 각 자료실에서는 이용환경에 특별한 배려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指定된 방이 있는 곳이 3 곳, 擔當職員이 있는 곳이 4 곳이다. reader 및 reader printer 는 약 61명에 한 대(24/1473) 꼴이다.

職員의 도움을 받아 利用者가 기계를 操作하도록 하는 곳이 3, 직원만이 기계를 취급하는 곳이 2 곳이었다.

(5) 資料接近方式은 대체로 잘 되어 있다. 印刷資料와 똑 같은 正式目錄을 만드는 곳이 4, 찾기 쉬운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곳이 1이다. 아직까지는 所藏量이 많지 않기 때문에 整理의 문제가 큰 일이 아니고 대개 무슨 자료를 가졌는지 자료실에서도 이용자들도 알고 있다.

(6) 利用頻度는 아주 낮다. 情報서비스 기관인 KORSTIC 만 제외하면 일반 연구원에서는 한달에 18 건 이내 정도이다.

(7) 資料室의 隘路事項은 研究所의 行政當局과 研究員들의 認識不足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基本投資 때문에 행정당국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이(3) 연구원들의 인식부족(2) 보다 심각했다.

2) 자료실 대상 設問

- (1) 研究所의 規模 : 연구원수 _____
 장서량(인쇄형태) _____
 자료실 직원수 _____
 정사서() 기타()
- (2) 현재 microform 소장량 ()
- (3) 마이크로형태자료를 장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키울 것인가?
 yes() no()
- (4) (앞의 것이 yes 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다() 없다()
- (5) 현재 가장 많은 형태의 자료는?
 (1) (2) (3)까지 표시할 것
 microfilm _____
 microfiche _____
 micro-opaque _____
 ultrafiche _____
 aperture ca r _____

기 타

(6) 가장 많은 종류의 자료는?

(1) (2) (3)까지 표시할 것

신 문 _____ 통계자료 _____
 학술잡지 _____ 정부간행물 _____
 논 문 _____ 기 타 _____
 기술보고서 _____

(7) 施設 :

reader _____ 기종 : _____
 reader-printer _____ 대 기종 : _____
 지정된 방이 있다 _____ 없다 _____

(8) 시어비스 :

담당직원 있다 _____ 없다 _____
 이용자가 기계를 조작한다 _____
 항상 도움을 받는다 _____

서지통정상태

- ① 정식목록을 만든다 _____
- ② 자세한 색인을 만든다 _____
- ③ 등록대장만 있다 _____
- ④ 찾기 쉬운 리스트를 만든다 _____
- ⑤ 미정리 상태이다 _____

(9) 利用頻度 :

하루에 5건 이내 _____
 일주일에 5건 이내 _____
 한달에 5건 이내 _____
 일년에 5건 이내 _____
 기 타 _____

(10) 마이크로형태 취급과 관련된 자료실의 애로사항 :

연구원들의 인식과 성의 부족 _____
 기본투자 때문에 행정당국을 설득시키는 어려움 _____
 무엇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른다 _____
 정리하고 이용을 도울 전문지식을 가진 사서가 없다 _____
 별로 없다 _____
 기 타 _____

V. 利用者調査結果 分析 및 要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주로 세 가지 점을 알아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人的事項으로 그들의 나이, 학력, 해외유학경험의 유무, 전공분야를 밝히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 응답자들이 마이크로형태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큼 알고 있으며,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5개의 설문이 있었다.

마지막 부분의 5개의 설문은 응답자가 마이크로형태를 써본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研究者로서 이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형태의 자료이용의 불가피성과 이것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큼 豫備知識이나 先入見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들이었다. 다음은 그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요약해 본 것이다.

1) 人的事項과 利用經驗

表 2. 응답자의 학력 및 연령별 분포

| 학력 | 20代 | 30代 | 40代 | 50代 | 합 |
|--------|-----|-----|-----|-----|-----|
| BA(BS) | 56 | 18 | . | 1 | 77 |
| MA(MS) | 25 | 27 | 2 | . | 52 |
| Ph. D | . | 15 | 6 | . | 21 |
| 計 | 81 | 60 | 8 | 1 | 150 |

이 중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연구원의 수는 35명(23.3%)이었다.

전체 응답자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마이크로형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한 가지라도 사용해 본 연구원은 전체의 76.7%(115명)이었고, 나머지 23.3%(35명)은 사용경험이 없었다. 이것을 학력별로 보면 석사학위 이상의 所持者는 모두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높고,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한 모두 사용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주제별로 보면 사용경험이 없는 35명이 과학원의 7명, 국제경제연구

원의 13명, 한국개발연구원의 15명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는 연구원 중에서 무경험자가 9% (7/76)에 비해 사회과학 전공의 연구원 중에서는 38%(28/74)라는 차이를 보였다. 즉 自然科學 및 工學의 연구에서 마이크로형태 자료 이용이 社會科學系 研究에서 보다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研究者들이 연령에 따라 마이크로 자료에 대해 갖고 있는 知識과 또 실제의 使用經驗을 살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要約되었다.

表 3. 연령별 지식과 경험

| 연령층 |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자료형태수 | 연구자 일인당 알고 있는 자료형태수 | 연구자들이 사용해 본 자료형태수 | 일인당 사용경험이 있는 자료형태수 |
|---------|-------------------|---------------------|-------------------|--------------------|
| 20代(81) | 138 | 1.70 | 82 | 1.01 |
| 30代(60) | 108 | 1.80 | 85 | 1.41 |
| 40代(8) | 14 | 1.75 | 10 | 1.25 |
| 149 | 260 | 1.75 | 177 | 1.19 |

연령별로 보면 30代의 研究者들이 마이크로형태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使用經驗의 정도가 가장 높고 20代가 가장 低調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 자료를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고 연구소에 온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研究經歷이 있는 젊은 世代인 30代가 새로운 형태의 자료 이용에 대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自己所屬研究所의 자료실에 있는 마이크로형태자료 이용경험자는 69.3% (104명)으로 전체 有經驗者 76.7%(115명)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형태는 마이크로필름과 팻쉬 정도였고, 그 외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마이크로 오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정도 (31명), 애퍼추어 카아드는 6% (9명), 얼트라 팻쉬에 대해서는 1.3%(2명) 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종류의 자료는 技術報告書, 學術雜誌, 論文, 新聞, 統計, 政府刊行物의 順位이다. 이것은 또한 조사대상의 자료실이 保有하고 있는 마이크로자료의 종류와 첫째와 둘째의 순위만 다르지 4 위까지의

내용은 일치한다.

과학공학방면의 연구자들이 마이크로자료의 利用度가 높고 그 방면에서 技術報告書가 차지하는 量과 重要性이 역시 크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2) 一般的인 受容態度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마이크로형태를 수용하는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肯定的이었다. 「인쇄형태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쇄형태 보다 좋다」는 사람이 전체의 54%(81명)나 되었고, 더욱 의외인 것은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마이크로형태 選好度가 높았다(60%, 21/35).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研究者들이 마이크로형태 자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고, 그 필요성에 대해 理論的으로 說得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使用 有經驗者와 無經驗者의 수용태도 비교는 다음과 같다.

表 4. 경험별 수용태도 비교

| | 全 體 | 有經驗者 | 無經驗者 |
|-------------|-------------|-----------|-----------|
| 쓰기 싫다 | 17명 (11.0%) | 10명 (9%) | 7명 (20%) |
| 할 수 없이 쓴다 | 52명 (34.7%) | 45명 (39%) | 7명 (20%) |
| 인쇄형태와 다름 없다 | 58명 (38.7%) | 45명 (39%) | 13명 (37%) |
| 인쇄형태 보다 좋다 | 23명 (15.3%) | 15명 (13%) | 8명 (23%) |
| | 150명 | 115명 | 35명 |

이들 研究者들은 연구소 자료실에서 마이크로형태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12명, 「할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35명, 도합 147명 (98%)의 대다수로 나타났다.

3) 마이크로자료가 가진 問題點에 대한 認識度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제 나름대로 마이크로형태를 연구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느끼게 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며, 그 深刻度는 어느 정도인가
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 3가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순위로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전체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항목과 또 3位까지에 가장 많이 포함시킨 항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 보았다.

마이크로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달리 구할 수 없는 자료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59명), 둘째로 「資料永久保存의 방법으로 좋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람(47명), 「자료보관의 space 문제의 심각성 때문」을 택한 사람(34명)의 順이었다.

이것을 다시 3位 내에 포함시킨 사람의 수자로 보았더니, 위의 항목이 다 포함되는데 순위는 「자료영구보존의 방법」이 127, 「space의 문제」가 116, 「달리는 구할 수 없는 자료를 구하는 길」이 92로 나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마이크로자료의 存在理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것을 情報利用의 매체나 情報傳播의 매체로 보다는 保存의 매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풀이할 수 있었다.

9번째 질문은 사용상의 문제점을 指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문제인가를 알아 내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눈의 피로」(43) 였고, 다음으로 「무슨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른다」 「사용장소의 제한」 「기계조작의 어려움」을 똑 같이 30명의 응답자가 지적하였다.

또 이것을 3位까지 가장 많이 포함시킨 항목별로 보았더니 「사용장소의 제한」 106, 「눈의 피로」 87, 「기계조작의 어려움」 73의 순으로,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장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일치를 보인다.

여기서 書誌統整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항목인 「무슨 자료가 있는지 우선 잘 모른다」를 3位 내에 포함시킨 사람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었듯이 아직 우리나라 연구자료실이 취급하

는 마이크로형태자료의 量이 지극히 制限되어 있어서 書誌統整의 문제가 부각될 단계가 아니라는 것과 「눈의 피로」가 일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도 앞 단원에서 지적된 Balwin 과 Bailey 의 조사(註 17)나 Holmes 의 조사(註 4)를 생각하면 역시 이용도가 낮은 연구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프린터의 필요성을 가지고 인쇄형태의 選好度를 再確認하려는 질문을 포함시킨 결과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受用態도와 대조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

즉 프린터가 없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은 응답자 135명 중 3명(2%) 밖에 안 되었고, 대다수인 132명(98%)이 「우선 훑어 보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프린트한다」와 「전체를 프린트해 놓고 본다」로 대답하였다. 특히 「전체를 우선 프린트해 놓고 본다」를 택한 35명(26%)은 인쇄형태를 명백히 더 좋아 한다는 의미, 즉 마이크로형태가 싫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앞의 일반적인 수용태도를 밝힌데에서는 「쓰기 싫다」가 11%(전체), 9%(유경험자), 20%(무경험자)로 나온 것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수용태도에서 나타난 결과도 결국은 프린터를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어 印刷形態를 얻을 수 있다는 前提下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hard copy 에 대한 選好度는 언제나 요지부동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질문은 마이크로형태자료를 좀 더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려면 자료실측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조건과 개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택한 項目의 順位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즉 研究者들은 이용이 자유로우려면 目錄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가 있어 hard copy 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이용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같은 순서로 지적하였다.

4) 利用者對象設問

I. 人的事項 :

나이 : 20代, 30代, 40代, 50代

학력 : BA(BS), MA(MS), Ph.D

해외유학경험 : 유 무

전공분야 :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및 工學

II. 마이크로형태에 대한 知識과 經驗

(1) 다음 마이크로형태 중 알고 있는 것에 ○표를 하시오.

Microfilm() Microfiche()

Micro-opaque() Ultrafiche()

Aperture card()

(2)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것에 ○표를 하시오.

Microfilm() Microfiche()

Micro-opaque() Ultrafiche()

Aperture card()

(3) 마이크로형태자료가 귀하의 자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다() 모른다()

(4) 연구소 자료실에서 마이크로자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5) 있다면 이용하신 자료의 종류는?

신문() 학술잡지() 논문() 통계()

기술보고서() 정부간행물()

기타()

III. 一般的인 見解

다음은 마이크로 자료에 대한 費下의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6)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형태자료는?

a) 쓰기 쉽다()

b) 별 수 없으니 쓰기는 쓴다()

c) 인쇄형태와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d) 인쇄형태 보다 좋다()

(7) 費下의 연구소 자료실이 마이크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a) 반드시 필요하다()

b) 할 수 없는 추세이다()

c)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 (8)(9)(11) 사항은 순위 ①②③으로 표시해 주시오.

- (8) 자료실에서 마이크로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 a) 경제적인 이유 _____
 - b) 달리는 구할수 없는 자료를 구하는 길이므로 _____
 - c) space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_____
 - d) 자료의 영구보존이 편리하므로 _____
 - e) 취급이 편리하니까 _____
- (9) 마이크로자료 이용이 인쇄자료 보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a) 무슨 자료가 자료실에 있는지 우선 모른다 _____
 - b) 기계조작이 번거롭다 _____
 - c) 눈이 더 피곤하다 _____
 - d) text에 표시하거나 노트를 달지 못한다 _____
 - e) 사용장소의 제한을 받는다 _____
 - f) 자료의 앞뒤 대조가 어렵다 _____
- (10) Reader-printer 사용의 경우
- a)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우선 print 하고 본다 _____
 - b) 우선 훑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print 한다 _____
 - c) 별로 printer 를 쓸 필요가 없다 _____
- (11) 이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료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 a) 시설을 잘 해야 한다(기계, 환경, space 등) _____
 - b) 목록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 _____
 - c) 도와주는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_____
 - d) printer 가 반드시 여러 대 있어야 한다 _____

이 상

VI. 結 論

우리나라의 研究者들은 아직도 마이크로자료에 대한 依存度가 낮은 편이고, 실제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태도에서는 미국의 연구자들의 반응보다 미국의 專門司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얻어진 반응과 비슷하였다. 그것은 그 두 그룹이 다 실제 이용은 별로 많이 하지 않고 理論的으로 필요성은 잘 설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974년의 마이크로出版社들이 실시한 조사(註 14 參照할 것)에서 나타난 것

을 다시 보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반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表 5. 美國司書와 韓國 研究者들의 수용태도 비교

| | 사 서(미국) | 교 수(미국) | 우리나라 연구자 |
|--------|---------|---------|----------|
| 좋다 | 70.25% | 16.75% | 54% |
| 그저 그렇다 | 20.25% | 43.50% | 34% |
| 싫다 | 9.50% | 39.75% | 11% |

그러나 새로운 媒體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 이용을 위한 心理的인 준비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印刷媒體에 대한 選好는 우리 나라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자료의 이용은 printer의 사용이 가능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現段階로서는 서지통정이 문제의 초점이 될 정도가 아니었다. 자료소장량이 아직 많지 않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목록이나 리스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서지통정이 마이크로자료 이용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금 注意를 환기시켜야 할 점은 專門司書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건전한 수용태도가 준비된 이용자들에게 실제 이용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될 수 있는대로 가볍게 극복하도록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론적으로 상당히 親密感이 있는 매체에 대해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마이크로出版이 본격적으로 상업화하고, 이용량이 더 늘기 전에 마이크로出版의 표준과 서지통정 문제를 자료취급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外部的 內部的 書誌統整은 물론, 目錄規則의 확립, 書誌記述의 표준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이크로자료의 대량출판은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을 招來할 것이다.

— 參考文獻目錄 —

- Bahr, Alice Harrison. *Microforms: the Librarian's View*, 1978~79. White Plains, N. 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1978.
- Carroll, Edward. "Bibliographic Control of Microforms: Where Do We Go from Here?" *Microform Review*, Vol. 7, No. 6 (Nov.-Dec., 1978) pp. 321~326.
- Cline, Nancy M. "A Librarian's Perspective of the G.P.O. and Micropublishing." *Microform Review*, Vol. 8, No. 1 (Winter, 1979) pp. 23~28.
- Diaz, A.J. *Microforms and Library Catalogs*. Westport, Conn.: Microform Review, 1977.
- _____. *Microforms in Libraries*. Westport, Conn.: Microform Review, 1975.
- Greene, Robert J. "Microform Attitude and Frequency of Microform Use." *Journal of Micrographics*, 8(1975) pp. 131~134.
- Hawken, William R. "Making Big Ones Out of Little Ones." *Library Journal*, 102(Oct. 15, 1977) pp. 2127~2131.
- Holmes, Donald C. *Determin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d in a Librar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Microforms*. Washington: Office of Education, Bureau of Research, 1970.
- Lewis, Ralph W. "User's Reaction to Microfich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1 (July, 1970) pp. 260~268.
- Myrich, William J. "Access to Microforms." *Library Journal*, 103 (Nov. 15, 1978) pp. 2302~2304.
- Reichman, Felix M. and Tharp, Josephine M. *Bibliographic Control of Microform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2.
- Saffady, William. *Micrographic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8.
- Salmon, Stephen R. "User's Resistance to Microforms in the Research Libraries." *Microform Review*, Vol. 3 (July 1974) pp. 194~199.
- Simonton, Wesley.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Microform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6(1962). pp. 29~40.
- Veaner, Allen B. "Micropublicatio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2, edited by Melvin J. Voigt. New York: Seminar Press, 1971. pp. 165~186.

Problems in the Use of Microforms in Research Librarie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users' attitude
in Korean research organizations —

Soon Ja Lee*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general problems of microforms as transmission and storage media of research information, especially in view of user's reactions to this unconventional media. Many articles and surveys from major American library journals and other professional publications have been mentioned and reviewed to find out the common issues which could be relevant to Korean case.

The latter part is the analysis of the two sets of surveys. One was done from 5 research libraries in Seoul and the other, from 150 researchers who were the users of the libraries.

The major findings are: The research libraries in Korea are in the infant stage of building their microform research collection. They are doing their special effort to level up the weakness of the collection.

Presently, general level of usage is very low, although the users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is unaccustomed media. They

*Full-time Lecturer, Sukmyung Womans University

are well convinced with necessity of use of microforms in their research and they have correct ideas about some of the problems they are going to face along with the eventual heavier use of the materials. They are psychologically ready to accept them and to make a good use out of them if some of the external conditions for proper use of the material would be guaranteed.